

(최우수) 이산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에게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4기)

이름 : 정다희

나는 때때로 공상에 빠질 때가 있다. '삶의 끝'과 '나'의 존재 이유를 곱씹다보면 어느새 나를 압박하는 세상의 언어를 이해할 것 만 같은 짜릿함을 느낀다. 잠시 스스로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이러한 공상은 나의 고민들을 어루어주면 삶의 소중함과 간절함이 생긴다. 그러다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나의 이러한 공상은 나의 고민들을 다룬다는 것을 말이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시험기간의 스트레스는 나에게 '학업'과 '노력'의 관계를 고민해볼 기회를 주었고 집단생활의 어려움은 '단합력의 효과'라는 주제를 논해보길 제안했다. 요즘에는 왜인지 나만의 '군인관' 만들기에 빠졌는데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간채 결과는 처참했다.

총5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아들 김신 전 참모총장의 씩씩하고도 아름다운 일생을 담은 회고록이다. 그이 유년시절은 총소리로 맞는 아침이 연필 대신 총을 드는 학생의 모습이 어색치 않은 시대였다. 그렇다 그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피난 가는 도중 할머니와 형을 잃고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김구 밑에서 2남 2녀중 차남으로 자랐다. 형제들은 모두 일찍이 죽어 김신은 형제를 대신해 아버지의 여러 일을 도왔다. 나는 평소 역사를 좋아했던 터라 역사강연으로 이름을 떨친 큰별쌤 최태성의 강의를 자주 들었다. 한번은 선생님을 직접 뵈 기회를 얻었는데, 김구의 일생을 다뤄보는 시간이었다. 강연 내내 선생님께서 김구의 업적을 말씀하실때면 나는 그의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 느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바치는 아버지에 사랑이 고팠을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어찌면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무능력한 국가를 원망스러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년 후 지금, 소중한 기회를 얻어 이책을 읽었다. 읽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나는 수치스러워 숨고 싶었다. 어리광스러운 성격일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책의 김신은 아버지만큼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큰 애국심을 가진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인의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육군항공대를 바라보며 마음 속에 파일럿이라는 꿈을 키웠다. 중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쿤밍 서남 연합대학을 거쳐 중국군관학교에 입학한다. 그당시 미국은 장교들을 파견시켜 교육을 담당시켰는데 이때 김신도 군관학교에서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뒤를 맡으며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졌다. 김구가 암살 사건으로 그의 곁을 떠난 후, 김신은 6.25전쟁 발발 직후 공군주요간부를 이끌고 일본에 가서 미공군의 F-51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한다. 그는 부족한 훈련기간에도 불구하고 1951년 8월 지리산 공비 토벌 항공작전 등 19차례 작전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또한 김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에도 '저공침투비행'이라는 새로운 공격전술을 창안하여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승호리는 북한의 주 보급로였기 때문에 미군은 B-29까지 동원하여 안간힘을 쓰지만 폭파작전은 실패, 이에 김신을 비롯한 한국공군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고도보다 더 낮은 1500ft 상공에서 폭격하기로 다짐했다. 결과는 마침내 철교를 부수는데 성공했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 속의 김신의 선택'을 고를 것이다. 우리공군은 6.25전쟁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긴급하게 후퇴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김신은 이때 후퇴소식을 접하지 못했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낙하산에 유엔군과 주공군이 후퇴했다는 문구를 달아 투하했다. 덕분에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리 위급할지라도 국민을 위한다는 그 굳은 신념을 지킨 것이다.

나는 평소 '결과'를 중요시 여겨 과정에 오류가 있어도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 모든 과정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건강에 크게 무리가 가고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하여 후회한 적이 많다. 그 당시엔 점수가 그 사람의 가치라도 된 듯 목매달았고 주변은 신경쓰지도 않았다. 김신 역시 독립, 전쟁의 승리라는 목표를 지니고 그것을 위해 앞으로 달려나갔던 사립이지만 나와는 다르게 그는 자신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듯 남을 위했고 어쩌면 자신의 목표에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일지라도 국민을 위해 서슴없이 했다. 한창 역사에 매료되었던

나는 여력 매체로 전쟁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탓에 그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꼈고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나에게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나에게 김신의 일생의 조각들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제 약 3개월 정도 된 자라나는 군인이다. 사실 나에게 군인은 나와는 관련없는 까마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늘 그들을 우러러 봤다. 하지만 막상 내가 군인이 되자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에 실망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대감에 부푼 사람에게 시험과 인간관계에 찌들어가는 모습을 절망하기엔 충분했다. 사실 주변 동기들 대부분이 내가 생각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하지 말고 성장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선택으로 약 10년간 다른 직업을 꿈꿀 수 없고 군대라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생긴다. 누군가는 이 기간을 단순한 의무기간으로 여기며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젊음을 담는 직업이고 집단인 만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부사관이자 내가 되고 싶다. 이러한 긍정적인 다짐과는 다르게 요즘 나는 쫓대없이 남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에 자주 낙담했다. 앞서 말한 '나의 군인관 만들기' 역시 생각해내지 못하고, 가치관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걱정에 두려웠다. 아마도 나는 군인관은 거창하고 나의 미래의 모습의 기준일거란 생각에 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김신과 나를 비교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치관을 정했다. 나는 군인으로서 '애국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김신장군이 위협을 무릅쓰고 한 행동은 단지 '승리'와 '부와 명예'가 최종목표가 아니었음을 알려줬다. 김신장군은 또한 '애국', '국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전생애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냈다. 나도 김신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 임관 후 겪을 고난과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를 떠올리며 버티고 극복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선사하고 싶다.

(우수) 강력한 열정 및 군인정신이 가져온 명예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2기)

이름 : 김준표

“이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 1초도 고민없이 군인이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 살고 있다. 나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면서 현재는 부사관 후보생이다. 부사관 후보생은 부사관이 될 사람으로 이 역시 앞서 말한 군인의 한 부분에 포함된다. 즉, 나는 국가를 지키는 원동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사관 후보생으로서의, 앞으로의 인생은 군인으로서 필요한 가치관과 자부심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 공군의 부사관이 될 사람으로서 이제는 학생이 아닌, 군인의 발자취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공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요즘, 공군참모총장이셨던 김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회고록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김신 장군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 및 희생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로, 김신 장군은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통해 자신의 생애 및 독립과정,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담았다. 공군 부사관이 될 나로서는 지나칠 수 없었던 정보 및 흥미로운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읽어보았다.

김신장군은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와 그의 아내 최준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시기였고, 이에 앞서 김구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그렇다보니 김구 선생은 일제에서도 현상금을 크게 걸어 이리저리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김구 선생의 어머니이자 김신 장군의 할머니께서는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가 없던 김구 선생을 보며 한탄했다. 이런 상황에 몰려 김신 장군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김신 장군은 안신학교(지금의 초등학교와 유사)고학년 수학여행 당시 미림비행중에 들리게 되었는데, 일본 항공대의 주력 항공기인 쌍엽기를 보고 김신 장군은 비생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수학여행에서 본 쌍엽기가 자신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과 비행기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공군의 참모총장이라는 위상이 높은 자리로 이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불가능한 목표일지라도 그 뜻을 위한 노력, 헌신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김신 장군은 아버지 김구의 뜻에 따라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각종 공군비행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뒤 6.25전쟁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이다. 나는 이를 김신 장군의 가장 큰 업적이라 생각하고, 매우 감명 깊게 보았다. 승호리 철도는 북한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요충지가 되는 곳으로, UN 공군의 대표적인 항공목표였다.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500회 이상 출격했으나 UN 공군은 실패하였다. 이 작전수행 업무는 결국 한국 공군으로 넘겨지고, 김신 장군은 초저공침투 공격법을 통해 UN공군이 500회 이상 출격했으나 실패한 이작전을 한번에 성공하게 되었다. 김신 장군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인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그것도 매우 까다로운 작업을 거침없이 참전하여 결국 임무를 완수해냈다.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김신 장군의 훌륭한 가치관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업적을 바탕으로 38세에 공군 중장으로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되었다. 그 뒤 5.16군사정변, 교통부장관 등 정계 진출을 하여 군인이 아닌 정치인 김신으로서도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렇다면 김신 장군은 어떻게 이런 수많은, 그러나 우리가 하기 힘든 멋진 일들을 해내셨을까?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 및 올바른 가치관과 투철한 군인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주변 상황도 한 몫 했다. 자신이 아버지가 백범 김구, 독립운동가라는 점, 수학여행에서 본 쌍엽기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은 점.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공군참모총장이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못했을 것이다. 비행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히 비행기다 생각하고, 관람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영감을 얻고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생각을 달리하여 자신의 꿈과 연계하는, 그런 관심은 사람으로서 열정을 갖게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똑같은 것을 보다가도 이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꿈, 그리고 열정을 표해 점차 생각의 방향을 넓혀나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에 오를수 있게 된다. 김신 장군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잘 파악하였고 공군의 구성원으로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를 위한 열정과 헌신의 과정이 공군참모총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이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열정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갖춰져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을 가져도, 그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다면 결국 말장 도로목 신세가 된다. 김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올바른 마음, 특히 일제의 유혹에 뒤돌리지 않는 그런마음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에 한 몫했다고 본다. 나는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군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단순 열정에서 좀 더 나아가 투철한 군인 정신 또한 김신 장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에서 보면 이는 열정만 가진다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 즉 투철한 군인정신을 통해 불가능한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대한민국의 공군의 구성원이 될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진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얻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큰 힘,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품을 모두 갖춘 훌륭하고 대표적인 상징인물 김신 장군, 나는 김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고, 마치 내가 김신 장군이 된 것처럼 몰입도 많이 해 보았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이 많았다. 단순 일대기를 통한 재미만을 가져온 것이 아닌 “나는 공군의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

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이에 대한 열정 및 군인정신을 통해 누구나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버팀목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 이런 마음가짐 또한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읽고 깨달았다. 그리고 김신 장군처럼 대한민국의 공군참모총장과 같은 큰 역할을 하기 쉽진 않더라도 그에 걸맞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무한한 노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그런 군인이 되어야겠다. 나와 같이 이런 목표를 갖고 올바른 가치관, 군인정신이 지닌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도 좋은 영향,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조국이 하늘을 날다>를 타인, 특히 군인에게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다.

(우수) 직접듣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2기)

이름 : 문지원

평소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져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강대국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또한 공군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던 와중이 회고록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이 나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뿐만아니라 회고록의 주인공이 백범 김구의 이들이라는 점에서 더 흥미가 생겨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김신 장군님은 1922년생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직접 겪으셨다. 장군님은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중국, 인도 미국 등 타국에서 조종사 과정을 밟으며 그 시대에 얼마 없던 항공분야의 전문가가 되셨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공군이 아닌 육군항공대에 소속되셨다. 당시 대한민국은 육군과 해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공군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공군은 1940년에 출범하였다. 육군항공대 소속으로 여러 작전에 참가하여 전투비행전대장, 비행교육전대장, 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하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군참모총장, 국회의원으로 힘을 쓰시다 2016년 5월 19일에 돌아가셨다. 장군님의 회고록을 읽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공군이 창설되는 과정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과정들을 읽으면서 나는 크게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음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신 장군님께서 '내가 살아온 날들의 많은 부분은 전쟁과 고난의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즉 장군님은 나라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전쟁과 여러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오셨다는 뜻이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하여 현재의 강대국이 되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어른들



이 해주신 아주 값진 선물이다. 후손들에게 나라 잃은 슬픔을 전해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선물 해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김신 장군님은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실때에도 무척 조심스러우셨다고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고록을 펴내신 것은 자신의 삶을 담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게라도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우리 현대사의 한자락을 조금이나마 더 밝혀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가 백범이어서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에게 맨주먹으로 피, 땀 흘려 가꾼 대한민국을 우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공군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항상 발전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신 장군님은 중국 공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셨으나 장군님의 아버지인 백범은 귀국을 만류하시고 미국으로 가 훈련을 계속할 것을 명하셨다. 그 결과 김신 장군님은 미국에서 정식 비행 훈련을 마친 유일한 한국인이 되셨고 이후 한국에서 공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 과연 백범께서 이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아들이 보고싶지 않고 반갑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다. 백범께서는 항공분야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던 때에 한 수 앞을 내다보며 이미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항공 분야의 가능성을 이해하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실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해서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갖춘 고지식한 군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백범께서 이리 수십년 전에 알아채신 것처럼 공군력이 국가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공권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으로 근무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안보와 공군력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항상 무엇이 옳은 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김신 장군님은 정말 많은 업적을 세우셨다. 그 많은 업적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이다. 이 작전의 의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미군이 번번이 실패한 작전을 우리나라 공군이 출격하여 성공시켰다는 데에 있다. 철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온갖 공격이 쏟아져 대충 폭탄을 던지고 오는 미군을 대신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공군이 낮은 고도로 접근해 폭탄을 투하하여 작전에 성공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작전이었지만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실행한 작전이었다. 또한 참모총장시절 군인은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며 전임총장들의 차, 근무병을 회수했다. 본인 또한 임기를 마친 후에 모두 반납하셨다고 한다. 우리도 무엇이 옳은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만의 견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이 책이 역사적 자료에 의존한 것이 아닌 역사의 장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저술한 회고록이라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좋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이 회고록을 통해 직접 보거나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직접 작성한 글을 읽으며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말들과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말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을 읽고 공군 부사관으로서의 자부심, 사명감, 책임감 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정예공군으로서의 역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평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었다. 현재 우리 학교 3학년의 생활목표는 '자율'이다. 나는 이 자율을 그저 놓고 취미생활하는 곳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직스러운 군인, 존경스러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에도 이용하고 싶어졌다.

이 책이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앞으로의 내 상황에 과제를 던져준 것 같아서 이 책이 아주 뜻 깊게 느껴진다. 장군님의 뜻이 담긴 회고록이 장군님의 바람대로 내인생의 한자락을 밝혀 준 것만 같다.

(우수) 조국을 위해 타올랐던 담담한 별 하나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2기)

이름 : 김지현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뒤로 73년이 흘렀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고 몇 번을 물어도 '내 소원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고 말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아들 김신은 나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시대에 많은 사명감을 느끼고, 국가를 위해 삶을 바쳤든 백범이었기에 그이 아들, 김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도우며 고생하다가 김신이 3살 때 돌아가셨고, 김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와 첫 만남은 13살 때이다. 이후 그는 아버지 김구를 가끔 보기만 하였다. 해방 후에야 비로소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광복 4년 뒤 아버지마저 암살당했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그러한 저자가 1922년부터 1994년까지 스스로 경험과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한 회고록이다.

벌써 학교에 들어온지 3년이 지나 이제는 정말 공군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날이 얼마남지 않은 내가 그동안 수많은 군사교육과 정신전력을 배웠음에도 가끔 내가 이곳에 있는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하곤 하였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였을 때에는 '멋있는 군인이 되야지!' 라는 마음 하나로 설레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멋있는, 올바른 군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든다.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나의 미래 모습은 무엇이였는가에 대한 답을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통해 찾고 싶었다.

김신은 중국에서 할머니를 따라 황해도 안악으로 들어와 학교를 다니며 일본군의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육군항공대를 보고 파일럿의 꿈을 키웠다.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이었고 쿤밍 서남연합대학을 거쳐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미국은 예비역 출신의 장교들을 중국에 파견 하였고, 항일 운동을 위한 군사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때 김신도 사관학교인 군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찾아오고 인도에서 훈련 중이었던 김신은 아버지의 지시로 미국으로 항공교육을 받으러 가고 수료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공군 군관 학교를 졸업 후 귀국하였다. 김신과 그의 아버지 백범은 함께 1948년 4월에 북한에 방문하였다. 백범이 남북연석회의에서 연설을 할 당시 남쪽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해 반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하니 북한 사람들이 열광적인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어서 북쪽에서도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고요해졌다고 회상하였다. 또 미국도 소련도 아닌 우리 동족끼리 통일을 위해 함께 해야한다 하자 박수를 치지 않은 모습을 본 김신은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다. 그는 아버지가 암살당한 이후 20대 후반의 나이에 대한민국 공군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그의 수많은 일화 중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을 꼽자면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이였다. 군사학 시간에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였지만, 사건의 주인공인 김신이 직접 서술한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다. 안전한 미군의 전술이 있었지만, 그는 국가를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저고도 비행을 하여 폭탄을 투하하는 위험천만한 전술을 펼쳤다. 고도를 낮춰 폭격하니 비행기의 몸통 대부분이 날아가는 상당히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용기 덕분에 철교뿐만 아니라 근처 주요 시설까지 파괴하여 큰 활약을 거두었다. 그가 강릉 전투비행전대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부하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여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함께 출격하곤 하였다. 그동안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달려나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쉽사리 답하지 못하였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 즉 애국애민의 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여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열정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신 장군이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여러 활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전투역량을 갖춘 조종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투철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었기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기술이 없으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결의가 아무리 굳어도 적을 이길 전투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 승리 할 수 없다. 그동안 나의 두려움도 전문지식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나의 전공 분야에 있어 더욱 노력하여 전문적 역량을 키운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바쁜 현실 속 나의 부족함을 꾸준히 채워 나가는 일은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겠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계속 해서 나를 흔들 것이다. 그렇기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가는 김신 장군의 일화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노력해가는 모습은 나에게 반성과 깨달음을 주었다.

조국이 없는 하늘에서도 창공을 가르는 조종사가 되겠다던 소년 김신의 꿈은 결국 국가를 지키는 조종사로 이루어졌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으나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투철한 정신력과 높은 전문 능력을 함양한 훌륭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연 내가 바라던 군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나의 질문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씩 답이 되었다. 아직은 부족한 형태이지만 임관까지 그리고 공군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군 생활을 해나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았기에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드 높은 영공을 지킬 정예 부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장려) 곤세어라, 김신 장군의 뜨거운 기상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2기)

이름 : 노현호

쇠똥구리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쇠똥구리는 똥을 굴리고 굴려 충분히 몸집을 키우고서 자신의 집으로 삼는다. 어릴적부터 보아왔던 쇠똥구리의 집 만들기는 가히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 어려운 자세로 똥을 굴리다가 도랑에 빠져 허우적 거리기도 하고, 장애물에 부딪혀 똥이 부서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쇠똥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본인의 할 일들을 해 나간다. 그 과정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장군은 그러한 쇠똥구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책은 김구 선생의 아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모습을 서술한 책이다. 앞서 쇠똥구리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김신 장군의 유년기는 순탄하지 못했다. 수많은 공격과 피난으로 얼룩진 제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한국전쟁 등... 그리고는 가족들마저 그의 곁을 빠르게 떠나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는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만 있지는 않았다. 많은 선열들의 모습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보여준 어르신들의 등을 보며 '공군의 자부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신 장군,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한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다. 김신 장군의 일생에서 가장 인상깊은 부분들은 첫째로 어린 김신 장군의 눈으로 본 할머니의 죽음과 아버지 김구 선생의 울음이었다. '이 불효자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강인하고 세상의 전부 같았던 김구 선생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소원은 조국의 광복이였고, 그러한 소원은 아버지를 불효자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당시의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 두 번째로 김신 장군의 굳건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가 깊게 마음속에 남았다. '내가 한강 다리 밑을 통과한 것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중략~ 나는 그저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태극기가 달린 비행기

를 몰고 있다는 기쁨을 누릴 길이 없었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기쁨을 나타내야만 했다' 과연 김신 장군 답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나는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내 깊게 반성하며 나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굳건한 군인정신과 정신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역시 승호리 철교 폭파 사건이었다. 당시 미군들의 노력에도 승호리 철교를 끊지 못했지만 한국 공군의 김신 장군이 거사를 성공시킨다. 국가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무장한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김신 장군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바로 위국헌신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공군 조종사라는 껍데기만 보고 멋진 사람이다. 올곧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하지만 나는 조종사는 그에게 있어서 위국헌신과 애국을 행하는 하나의 자동차가 아이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겠다. 이루어야겠다고 추상적인 생각만 했던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었다. 그에게 애국은 인생의 숙제였던 것이다. 이 책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한번도 꺾이지 않았던 고귀한 열정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번도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린 적이 없었다'. '동족상잔을 막기 위한 노력, 갈등과 긴장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다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에서 굳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신 장군은 수동적인 삶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는 주도적이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어떤 기회들이 나를 스쳐지나 갔는지. 그리고 어떤 선물들이 나에게 올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김신 장군이 보여주었던 조국을 향한 빈틈없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의 군생활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부사관 후보생을 지나 정예 공군 기술 부사관으로 나아가면서 김신 장군이 남긴 애국과 애민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김신 장군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글을 빌려 모든 선열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먹고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우리나라의 모를 군인분들(애국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에게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권해드리고 싶다. 김신 장군이 보여준 굳세고, 뜨거운 기상에 깊이 감동하며 글을 마친다.

(장려) 영원한 조국의 영광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3기)

이름 : 유은제

‘우리 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셨다면 난 어땠을까?’ 내가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이다. 김신 전 참모총장님께서는 퍼내는 말에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야 마땅하지만, 이 때문에 버거운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다는 말씀을 적어두셨다. 즉,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는 것은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 분들의 업적만 듣고 더 깊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에게 그분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온 것들보다는 더 큰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에는 김신 전 참모총장님께서 어린시절에 할머니와 함께 고생하시던 시절부터 중국, 미국 등에서 조종사가 되시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던 시절, 아버님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셔서 통일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던 시절, 한국전쟁이 터지고 한민족이 갈라서서 맞서 싸우던 시절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김신 전 참모총장님의 인생이 담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세가지 큰 감정들을 느꼈다.

첫 번째는 김구 선생님과 그분의 목표를 위해 도우신 김신 전 참모총장님의 용기에 대한 존경심이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남쪽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려 하자 이를 막고, 남북의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셨다. 남북이 갈라지면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견하셨던 것이다. 또한 김구 선생님의 아드님께서도 김구 선생님의 목표를 위해 옆에서 보필하시며 도우셨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아직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은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와 그 자제분들의 인생에 대한 슬픔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분들은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셨다. 그 만큼 자신의 인생보다 조국의 광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이 존경스럽지만 한

편으로는 슬픈 감정이 들게 했다. 내가 가장 가슴아프게 읽었던 구절이 하나 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조국의 광복이었고, 그러한 소원은 아버지를 불효자로 만들었다.' 이 한 구절이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나 하지 못할 일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슬프게 다가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사명감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독립운동가분들의 사명감이 가장 많이 느껴졌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명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게 되면서도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사명감은 군인은 보통 사람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모두가 뒷걸음질 칠 때, 군인들은 앞장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말은 바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그 답은 항상 확실하지 않았다. 군인이란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도 군인으로서의 목표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 책은 내가 그 답을, 내가 찾아 헤메고 있던 삶을 살아온 선배님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에게도 그런 삶을 권해주는 책이다. 아직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내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책에서 좋은 교훈들과 삶의 조언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아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에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 했던 다짐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신 독립운동가분들을 본 받으며 살아가야겠다.

(장려) 젊음을 조국과 하늘에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2기)

이름 : 박준영

승호리 폭파작전을 아는가. 나는 이 작전을 군인정신전력을 공부하며 제 11과 이기는 군대와 참 군인의 자세를 통해 알게 되었다. 유엔공군도 500회 이상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것을 우리 한국공군이 초저공침투 공격법으로 성공시킨 작전말이다. 또한 이 작전을 공부하면서 책임자가 김신 장군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맘 속에 약간의 관심이 생겼는데 이번에 독서감상문을 쓸수 있는 기회가 생겨 써보게 되었다.

김신은 1922년 9월 2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출생하였다. 당시는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생한 것이다. 김신의 아버지는 모두가 아는 김구로, 그렇기에 김신은 남북연석회의, 행방후 북한 방문등 김구를 도와 여러 일을 수행하였다. 김신 장군이 궁극적으로 공군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구의 혜안덕분이였다. 백범 김구는 '미리 전쟁은 항공력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김구 밑에서 성장한 김신은 중국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후 미국으로 유학을가 미국 비행학교 정규과정을 이수하였다. 이것이 공군 김신 장군의 시작이다.

그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김신은 대한민국 공군의 창군 멤버가 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해 6. 25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머스탱 인수 10인의 요진에 선발되었다. 이는 당연한 것이 김신 장군은 한국 공군내 머스탱 정규교육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였기 때문이다. 그는 머스탱을 인수하러 갔을 때 머스탱 매뉴얼을 지참해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통역도 겸하였다. 김신은 뿐만아니라 북한군과 빨치산 토벌에도 앞장섰다. 전방에 나서지 않고 후방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김구의 아들이란 점에서 만약에 포로로 잡혔을 때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김신 장군은 절대 후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가장 처음 말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승호리 폭파 철교 폭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승호리 철교는 대

동강에 위치한 철교로, 북한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요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호리 철교는 폭파 1순위였고 유엔공군의 500회 이상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작전수행권이 한국공군으로 넘어왔다. 1952년 1월 12일 김두만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전투기 5대 출격하였고, 그후엔 윤응철 대위가 이끄는 3대도 출격하였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이에 책임자인 김신은 고공투하가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저공침투공격법을 쓰기로 하였다. 이 공부법은 말 그대로 아주 낮은 고도로 목표에 접근해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아주 큰 위험이 있는 작전이었다. 낮게 비행하게 되면 적에게 노출되기 쉬웠고 언제든 격추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김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공군은 고귀한 가치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였고 멋지게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 작전으로 인해 북한은 보급로가 차단 되어 물자소송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전쟁 이후에는 공군참모총장과 교통부장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등을 역임하였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해 살아오신 김신 장군은 2016년 5월 19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신 김신 장군님을 잠깐동안 애도하도록 하겠다. 나였다면, 나였다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굳이 군인이 되지 않아도 김신 장군은 잘 살수 있었을 것이다. 김구의 아들로서 말이다. 또한 김구가 김신을 공군학교에 보냈다고 하지만 충분히 그만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열해보니 난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지켜내시고 싶었구나. 저 모습이 내가 11과를 공부하며 달달 외울때까지 본 그 가치구나. 누가 시킨게 아닌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한 참 군인의 자세구나, 란 생각말이다. 솔직히 난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 책을 읽기전까진 군인이 되는 것을 그냥 직업적으로만 생각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안정적인 직업으로만 말이다.

나 말고도 확신할 순 없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군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것인가. 조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군인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군인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앞서 말한 거와 같은 맘을 가지고 있거나 군인에 대하여 꼼꼼이 생각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김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며 진짜 참군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목표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젊음을 조국과 하늘에 불태우리라. 앞으로의 내 군인에 대한 국방을 다하는 맘을 다시 생각하고 정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장려) 물러설 곳을 두지 않는다는 것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4기)

이름 : 장원주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입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아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을 돕고 지원하며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여 하나가 되기까지 모든걸 다 바치신 분이다. 이 책 속에는 그의 아들인 제 6대 공군참모총장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외롭고 가난했던 어린시절에서부터 공군참모총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있어 책을 읽는 동안 내가 그 순간을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다.

김신 장군님은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과 최준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최준례씨는 김신 장군님을 낳고나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얼마뒤 생을 마감하고, 김신 장군님은 할머니 밑에서 형과 함께 자라게 된다. 임시 정부는 중국에 수립되었기에 김신 장군님은 중국 각지를 옮겨 다녀야 했다. 항상 수배가 걸려 위협을 느끼는 김구 선생님은 한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항상 숨어서 생활해야 했다. 임시 정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무수히 많은 지원을 하였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속에서도 오로지 희생정신이 그 당시 상황에 잘 드러나 있었다. 김신 장군님의 도움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김신과 형을 키우셨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끝까지 뒤에서 지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형제를 키우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강인하고 멋졌다.

아프신 몸으로 형제를 키우시던 할머니는 1939년에 돌아가시고 얼마뒤 형인 김인도 폐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순식간에 김신 장군님은 곁에는 아버지 말고 그 누구도 남지 않았다. 어린아이가 홀로 견뎌야 했을 외로움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이다. '슬퍼하고만 있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죽음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라는 김신 장군님의 말은 너무 이른 나이에 많은 아픔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일찍 철이 들어버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슬펐다.

혼자남은 김신 장군님은 아버지인 김구 선생님을 도와 임시정부의 일원이 되었다. 임시정부안에서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었기에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김신 장군님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도 김구 선생님과 함께 다니며 번역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임시정부 일을 도우면서 김신 장군님은 중앙대학 부속고급중학에 다니며 항상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힘든 상황속에서 배우기 위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신 장군님은 서남연합대학에 들어간뒤 다음해에 공군군관학교에 입학하셨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공군이 존재하지 않아서 교육과 훈련을 모두 해외에서 받아야만 했다. 낯선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비행훈련은 커녕 기초군사훈련만 6개월을 받았다는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는 생각만해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같았다. 하지만 '조종사가 되기 위한 꿈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져 갔지만, 흔들린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김신 장군님의 말씀이 꿈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 알수 있게 해주었다. 한번도 흔들리지 않은 김신 장군님의 꿈을 향한 나아감이 나까지 덩달아 힘이 나게했다. 언젠간 나도 김신 장군님처럼 내가 정말 바라고 꿈꿔왔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모든걸 건뎌내고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훈련을 받기 위해 인도로 떠난 김신 장군님은 거기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맞이한다. 누구보도 기뻐하고 좋아했을 김신 장군님의 모습이 그려져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한편으론 책을 읽는 동안 어찌면 당연해져야 할 그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 고통 뒤에서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온 김신 장군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연락하지만 "나라가 수립돼도 너같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너는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공부를 계속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들을 얼른 보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텐데 언제나 조국을 먼저 생각하시고 아들의 아버지로



서가 아닌 진정한 스승이 되어 냉정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김구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았다. 아버지의 반대로 김신 장군님은 미국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모든 훈련이 끝난 뒤에야 광복을 맞이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십년동안 나라 잃은 슬픔속에서 전 세계를 떠돌던 김신 장군님이 광복을 맞이한 고국으로 돌아오던 그 순간에 느꼈을 감정들은 무엇보다 깊고 진할 것이다. 하지만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과북이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며 갈라서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같은 민족이 갈라서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던 김구 선생님은 김신 장군님과 함께 평양으로 향한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렸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짓던 상황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부자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는 다르게 평양방문은 성공적이었다. 김신 장군님은 방북 당시 김구 선생님의 마음을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낙숫물로 댕돌을 때려서 바위를 깨고 댕돌을 뚫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의 살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한다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셨다.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켜질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임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그에 따른 실패와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한게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의 남과북이 갈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김구 선생님은 1949년 6월 26일 암살을 당하신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김구 선생님이 같은 조국의 사람으로부터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화가났다. 책을 통해 처음알게 된 이야기이지만 김구 선생님의 암살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조국에 남아계셨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김신 장군님은 엄격한 감시 속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셨다. 비록 열악하고 부실한 환경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김신 장군님과 공군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여러 사람의 긴 노력 끝에 6. 25전쟁에서 공군이 빛을 발 할수 있게 되었고,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 6. 25전쟁에 대해 평소 육군과 해군의 이야기만 많이 접 할수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 당시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조상들이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얼른 공군의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신 장군님은 전쟁이 끝난 뒤제 6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셨고 타이완의 대사로도 부임하셨다. 김신 장군님이 어린시절부터 고국이 아닌 먼 타국에서 나라없는 서러움에 힘든 생활을 하셨던 그 순간부터 조종사가 되기위해 훈련을 받은 순간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동안의 고생과 공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책을 읽는 마지막 순간까지 김신 장군님의 순간들을 내가 함께 해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김신 장군님이 느끼신 감정들이 나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어 매우 뜻깊었던 것 같다. 책을 다 읽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현실의 유블리, 조건과 상황의 굴곡을 아버지도 그 누구 못지 않게 파악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물러설 곳을 두지 않으셨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실천을 하셨을 뿐이다’라는 부분이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마음을 다하고 물러설 곳을 두지 않는다면 김구 선생님과 김신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평소 불가능한 것은 선불리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을 쉽게 생각하던 나의 모습에 반성하게 되었고 책을 읽는 동안 우리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속에서 느꼈던 마음 가짐을 잊지 않고 간직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공군이 되고 싶다.

(장려) 참군인의 상징, 김신

소속 : 항공과학고등학교(52기)

이름 : 경태현

최근 임관을 위한 임관종합평가 중 한 과목인 정신전력평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공부하고 몸과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백범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으로 일제강점기의 투쟁은 물론 해방 이후 한국의 혼란스러운 모습, 6. 25전쟁부터 대한민국의 성장 초기과정이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백범 김구의 이야기 또한 자주 등장하여 김구의 생각과 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정신전력 교재와 다름없었습니다.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애국심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두 분 모두 참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군인이라는 말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참군인이란 군인다운 군인이라는 말인데 과연 군인다운 군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정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어쩌면 정답의 일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김구는 군인으로서 전쟁과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셨지만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주셨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목숨이 위협할 수 있는 북에 방문까지 하며 끝까지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하나 남은 아들을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위해 광복 후에도 미국으로 비행교육을 보내는 등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김신 장군님은 어렸을 때부터 김구의 자식이라는 지금은 영광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셨습니다. 일본의 포위망이 언제든 자신을 향해 있었고 임시정부로 바쁜 아버지와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일본을 피해 중국 이곳저곳을 떠돌며 다른 독립운동가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년시절을 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공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

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시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군 조종사가 되셨습니다. 군인으로서 6. 25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군복을 벗으신 뒤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중화민국 대사로 일하시며 중화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조국이 없는 설움과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후손들은 저 두분을 통해 참군인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구와 김신 장군님께서서는 참군인이라 불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김신 장군님의 삶과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김신 장군님께서 겪으신 일들과 정신,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아버지인 김구께서 단독정부 수립반대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북한에 모시고 다녀오므로써 한반도 완전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해 육군항공대에서 공군의 기초 틀을 다지셨습니다.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정찰을 맡는 등 다양한 임무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상잔의 비극인 6. 25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였던 공군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참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맞서 싸우며 웅진전투를 포함한 여러 공군 작전 임무에서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당시 지휘관의 위치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행에 나서며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에도 직접 출격하셨습니다. 저고도 비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 미국도 실패하였지만, 김신 장군님께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용기있게 저고도 비행을 성공시키며 작전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후 제 6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공군 개혁을 주도하셨습니다. 일본군 출신 중 공군과 관련이 없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국민이 내는 혈세를 유용하게 쓰는 것이 군인의 애국이라 생각하셔서 필요 없는 곳에 사용되는 국방비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자신의 물품들을 모두 반납하셨습니다. 또한 가짜 영수증으로 돈을 빼돌리는 관행을 없애면서 공군의 잘못된 관습의 뿌리를 뽑고자 노력하시며 선진 공군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군복을 벗으신 뒤 중화민국, 현재 대만의 주재 대사로서 대만과 한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시고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통국 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고속도로에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급료를 높여주는 일 등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범김구기념관을 설립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힘쓰셨습니다. 이처럼 김신 장군께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기틀을 다지고 완성하셨습니다. 직후 발생한 6. 25전쟁에 참전하여 여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세를 유리하게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전후에는 중화민국 주재 대사를 맡았으며, 또 대만과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막후 역할을 하여 동아시아 평화 질서와 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는 위인이라 부릅니다. 현재 위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은 매우 많지만, 책에 나온 것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신 김신 장군님께서도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모릅니다. 저는 충분히 김신 장군님 또한 위인이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김신 장군님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도망쳐서 살 궁리부터 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신 장군께서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고 결국 여러 임무와 작전에 성공해내셨습니다. 끝까지 해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의지와 애국심을 가지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왔고 이제 곧 임관을 앞

두고 있습니다. 임관 전에 이 책을 읽으며 군인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과 가져야 할 정신과 마음가짐, 즉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군인이셨던 김구와 김신 장군님의 군인으로서의 직업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참군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